

무주산골영화제 평가 보고회

21개국 77편 상영·관람객 2만9000여명 자연 속에서 문화 등 함께 즐기는 축제 호평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 평가 보고회가 14일 무주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영화제를 되짚어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무주산골영화제 황인홍 조직위원장과 유승열 무주군의회 의장, 유기하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됐던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 내용을 결산하고 △관객 만족도 조사결과와 △사채 평가 결과 등을 공유했으며 △산골영화제를 둘러싼 여건변화와 나아가야 할 방향, △차별화 전략과 프로그램개발, △주요소득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주민참여 및 민간주도형 추진 방안, △업그레이드를 위한 제안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산골영화제 황인홍 조직위원장

(무주군수)은 “무주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정서를 잘 담아 비교 불가한 영화제로, 또 확실한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영화축제로 성장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라며 “이 자리를 기반으로 무주산골영화제가 지역의 브랜드를 키우는 휴양영화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문화산업으로 당당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에서는 27개국 77편의 영화가 상영됐으며 5일간 총 2만 9천여 명이 영화를 관람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화는 무주를 예체문화관(대공연장, 산골영화관)과 등나무운동장, 전통문화의 집, 전통생활문화체험관,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 향로산 자연휴양림에서 상영됐으며 올해 첫 산을 보였던 향로산 자연휴양림 ‘별밤소풍’은 영화 관람과 별보기 프로그램

이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영화제에 ‘무주’라는 지역성을 잘 담아낸 하이라이트로 꼽혔다.

축제기간동안 진행된 관객 만족도 조사(무주예체문화관 대공연장 앞에서 422명 대상 6.21.~25.까지 진행)결과 제6회 무주산골영화제의 평균점수는 85.7점이었으며, 설문참여자의 90% 이상이 무주산골영화제가 무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올해 처음 무주산골영화제를 방문한 관객비율(50%)과 재방문 관객비율이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2~4회에 걸쳐 방문한 관객 수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 이유로는 주로 영화를 보기 위해(47%), 또는 휴가(32%)를 보내거나 공연(6%)을 즐기기 위해였으며 ‘덕유산 상영작 관람을 위해’, ‘영화제를 보기 위해 휴가 일정을 맞췄다’는 답변이 눈에 띄었다.

불편했던 점으로는 없다(28%)와 행사장의 교통편(18%)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숙박시설(14%), 즐길거리 부족(10%)등을 꼽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촌적응학교 운영 ‘눈길’

실생활에 유용한 용접기술 등 필요한 과목들 구성 큰 호응

진안군은 귀농귀촌인의 원활한 정착과 활기찬 농촌생활을 위해 농촌적응학교를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4월에 이어 올해 2번째로 운영되고 있는 농촌적응 학교는 귀농귀촌 교육 전문가인 (사)농촌으로 가는 길(대표 성여경) 주관으로 진행됐다.

12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관내 20명의 귀농귀촌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론교육은 진안 홍삼빌에서 현장실습은 안천면 지사마을에서 이뤄지고 있다.

농촌생활에 꼭 필요한 관리기 등 생활 농기계 사용방법과 실생활에 유용

한 용접기술 등을 비롯해 보일러의 구조와 응급조치, 전기이론 등 적정기술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지역민과의 갈등관리 해결, 농촌문화의 이해와 귀농귀촌 등 농촌 생활에 꼭 필요한 과목들로 구성되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농촌적응 학교에 참가한 한 참여자는 “농촌생활에 직접 접목할 수 있는 현장 교육은 보다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하고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내 귀농귀촌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귀농귀



촌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부귀면 신거석마을 마을회관 준공식 가져

진안군 부귀면 신거석마을(이장 장길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마을회관 준공식을 지난 13일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올 3월 착공한 신거석 마을회관은 총사업비 약 1억여 원을 들여 연면적

83.9㎡의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됐다.

준공식은 마을 주민의 건강과 장수를 비는 고사를 지내고, 마을에서 마련한 음식을 함께하며 화합을 도모했다. 장길진 이장은 “현대식으로 깨끗하게 지어진 마을회관에 주민들을 따뜻하게 모실 수 있어 기쁘고 주민들도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진안군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모범적인 마을회관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결집에 힘쓰는 복지 마을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항로 군수는 “주민 숙원인 마을회관이 완공되어 기쁘고, 언제나 주민들이 찾아와 쉬 수 있는 사랑방이 되어 주민 화합과 단결의 중심점 역할을 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지난 13일~14일 2018 신규공무원 우리군정 바로알기 워크숍을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했다.

“제대로 알고 멋진 공직자 되자”

무주군, 신규공무원 우리군정 바로알기 워크숍 진행

무주군은 2018 신규공무원 우리군정 바로알기 워크숍(이하 신규공무원 워크숍)을 지난 13일과 14일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규공무원 워크숍은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소양과 현안을 공유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60여 명이 참가해 소양교육과 우리군 바로알기 탐방, 멘토·멘티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무주군 신규공무원들은 “무주군 공무원으로 일을 하려면 무주를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그 기회를 갖게 돼 기쁘다”라며 “오랜 공직경험이 있으신 선배님들과의 만남도 가진 만큼 많이 보고, 듣고,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입을 모았다. 소양교육시간에 신규공무원들은 군정 주요업무를 비롯한 지

방의회와 공무원노조의 기능과 역할, 청렴한 공직생활, 친절교육을 받았으며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무주천마연구소를 비롯한 만리랜드와 태권도원, 덕유산리조트, 덕유산, 머루와인동굴, 전통공연문화촌 등 주요 명소들을 둘러봤다.

13일 진행된 멘토·멘티 화합의 시간에는 선배 공무원들(탐방)이 자리를 함께 해 공직생활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며 신규공무원들의 어려움을 듣고 궁금증을 해소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이제 여러분은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주도하는 공직자”라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본분을 다해주시길, 무주를 무주답게 만들고 군민을 행복하게 하는 일을 힘차게 시작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 성수면, 이장·공직자 한마음 등반대회

진안군 성수면(면장 이해석)은 14일 성수 만덕산에서 이장·공직자 한마음 등반대회를 열었다.

이번 등반대회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는 면사무소 직원들과 31개 마을이장, 진안군청 행정지원과, 건설교통과 직원 등 60여 명이 모여 만덕산을 등반하며 행복한 소통한 시간을 나누고 친목과 우의를 다졌다.

오영근 성수면 이장협의회장은 “한 마을 대화를 통해 이장들과 직원들이 더 가깝게 소통 할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성수면 발전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등반대회에 앞서 이해석 면장은 “그

동안 성수면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 해주신 이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장과 공직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등반대회를 열린 만덕산은 진안군 성수면과 완주군 소양면 경계에 있는 고구려의 보덕이라는 승려가 창건한 만덕사(萬德寺)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임진왜란 당시 격전을 벌였던 웅치고개가 있고, 소태산 박종빈 대종사와 제자들이 처음 훈련을 한 곳으로 원불교 5대 성지 중 한 곳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 아리

장수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일제단속 실시... 12월 11일까지

장수군은 12월 11일까지 1개월 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일제단속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일제단속 기간인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에 걸쳐 주차위반과 민원이 빈번한 장소를 10여 곳을 선정해 집중단속을 벌였다.

이후 일제단속 기간 동안에는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구형 사각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기는 표지차량 중 보행장애인이 미탑승 차량 ▲주차표지 위·변조·표지 불법대여 ▲불건 적치 등 주차면 외 가로막는 주차방해행위 등을 단속 및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는 10만원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정사용은 2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집중단속 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바닷바람 주차문화를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삼기 탐방관리이사

겨울철자연재난 대비 덕유산 점검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삼기 탐방관리이사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을 앞두고 지난 13일에서 14일, 이틀간에 걸쳐 덕유산국립공원을 방문해 재난관리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김삼기 탐방관리이사는 첫째날 덕유산국립공원 내 덕유대야영장의 동절기 대비 야영장 시설물 관리 현황과 산불 예방 준비태세를 점검하였으며, 이른날 적상산으로 이동해 탐방로 및 겨울철 상습 결빙으로 인한 차량 통제구간 등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김삼기 탐방관리이사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책기간 동안 단 한건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허영범 소장은 “겨울철 사고 위험지역 및 주요 공원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재난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태 홍

서바이벌

레프팅/카약 스키/보드

ATV / 버기카

팬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스 질기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U대회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태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질기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 휘트	